

# 차라리 그 문을 아니 열었다더라면



**국경포커스**  
 강동완  
 동아대 교수·하나센터장  
 강동완TV 운영자

차라리 그 문을 아니 열었다더라면 마음이 덜 아리웠을까. 아주 한적한 산골마을도 아닌, 대도시의 집이라고는 차마 믿기지 않았다. 북한 양강도에서 가장 큰 도시라는 혜산시 어느 마을의 집은 그야말로 초라함 그 자체였다. 문을 열고 마당으로 얼굴을 내민 어머니와

아들이 아니었다면, 그저 사람이 살지 않는 버려진 집이라고만 여겼을 것이다. 아니 그렇게 바라보고 믿고 싶었다. 집 앞 처마에 앉은 어머니의 상념이 담배 락에 갇힌다. 나무판자로 누더기처럼 얽어놓은 지붕은 가녀린 빗줄기조차 막아 주지 못할 것 같다. 경계로 나누어져 집 앞에 철조망을 세운

것도 서러운데, 판자촌 그 한 뼘도 안 되는 집을 나누어 또 다른 사람과 갈라놓았다. 하느작거리리는 풍요가 잠시라도 시름을 날려 버리려나. 신음소리도 묻혀 버려 심살내리는 북녘의 사람들이여... \*심살내리다: 잔 근심이 늘 마음에서 떠나지 않다.

# 베트남 '축구 영웅' 박항서의 매직 계속되기를

**스포츠 세상**  
 박병헌  
 국제문화체육부장·국장

5년여 동안 베트남 축구 역사 확 바뀌 놓아 스किन 지도 주효... 은혜를 그라운드에 표출

베트남에서 '축구 영웅'이 된 박항서 감독은 국내 프로 축구 지도자 시절에는 '빛나리 선생'이라는 별명을 가졌다. 나이에 비해 머리 슐이 적었기 때문에 붙여졌다. 2002년 국제축구연맹(FIFA) 한일월드컵에서 4강 신화를 창조한 대한민국 대표팀의 수석코치였던 박항서는 이전까지는 무명 지도자에 불과했다. 한일월드컵 조별리그 폴란드와의 1차전에서 역사적 첫 골을 터뜨린 황선홍이 달려가 안긴 것은 네덜란드 출신의 거스 히딩크 감독이 아닌 박항서 코치의 품이었다. 그의 얼굴과 이름을 널리 알린 순간이었다. 2002년 4강 멤버들이 탄탄대로를 달리는 동안 박항서는 지도자로서 크게 빛을 보지 못했다. 2017년 10월 '열대의 나라' 베트남으로 떠나기 전까지 설 곳을 잃어 아 마추어팀이던 창원시청을 지도했다. 지리산 밑자락의 경남 산청군 출신인 그에게는 고향팀이었다.

박 감독이 베트남 국가대표팀 지휘봉을 잡았을 때 국내 반응은 시큰둥했다. 그저 그런 곳으로 갔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박 감독 자신도 1년만 버티자는 각오로 떠난 게 어느덧 5년여 세월이 흘렀다. 23세 이하 팀과 성인 대표팀을 지도했다. 베트남 축구의 역사는 박 감독의 취임 전과 후로 나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베트남에서 '박항서'라는 이름 석 자는 거룩한 이름이 되었다. 박 감독이 부임하기 전만 해도 베트남은 동남아 2인자 그룹이었지만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말도 안 통하는 나라에서 그는 마지막 축구인생을 걸겠다는 각오로 혼신의 힘을 쏟아부었다. 경기가 끝나면 아들 뺄도 안 되는 어린 선수들의 발을 직접 닦아 주고, 등을 두드려 주며 격려하는 등 스किन심을 마다하지 않았던 게 주효했다. 몸으로 부딪히며 제자들에게 사랑의 감정을 전달하는 원초적인 방법을 사용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감독받은 선수들은 스승의 은혜와 고마움을 그라운드에서 그대로 표현했다.

경쟁자였던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이제 베트남 앞에서 명함을 내밀지 못한다. 베트남은 아시아축구연맹(AFC) 주관 대회에서 최초로 결승 무대를 밟았다. 아시안게임 4강-FIFA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 진출도 동남아 나라에선 최초의 업적이다. '동남아 월드컵'이라 불리는 아세안축구선수권대회(AFF)는 세 번 출전해 두 차례 결승에 올라 한 번 우승했다. 박 감독과 함께한 베트남 축구는 외연을 동남아에서 아시아로 크게 넓혔다. 베트남 국민에게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다. 베트남 축구 최조라는 수식어를 수차례 작성했고, 국가에서 훈장을 받은 그다. 베트남 권력 서열 2위 응우옌쑤언푹 주석, 최대 재벌인 팜남브엉 회장 등 정재계 유력 인사들은 그들이 주최하는 행사에 박 감독을 자주 초청하곤 했다. 박 감독과의 친분은 곧 지명도이며 권력이기 때문이었다. 베트남에서 '올해의 인물'로 선정되는 등 제일 유명한 사람 중 한 명이 박 감독이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 사인을 요청



5년 동안 베트남 축구 대표팀을 이끈 박항서 감독이 1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영종도=연합뉴스

하는 바람에 외출 한번 하기가 어려울 정도다. 소년 시절 개구쟁이에 공부도 잘한 골목대장 박항서는 축구 입문이 늦었다. 일본 유학생 출신인 아버지는 경찰 간부였고 어머니도 진주여고를 나온 유복한 집안에서 자란 그는, 중학생 때까지만 해도 장래 희망이 군인이었고 축구는 논두렁에서 공차는 게 전부인 평범한 학생이었다. 부모의 높은 교육열 덕분에 서울 경신고에 진학할 수 있었다. 축구 명문 경신고 축구부원들이 공 차는 모습에 매료됐던 것

이 소년의 운명을 갈랐다. 신장 165cm에 비쩍 마른 체격으로 축구부 경력이 전혀 없는 그에게 기회가 올 리가 없어 6개월간 물주전자 들고 다녔다. 운동선수에 대한 학사 관리가 미흡했던 그 시절 관행 때문에 제때 졸업을 못하고 풀었다. 실제 1957년생이지만 호적이 1959년생으로 돼 있는 이유는 청소년 대표팀에 들어가기 위해서였다. 58년생 선수들은 그를 깎듯하게 형으로 예우한다. 축구 시작은 비록 늦었지만 약바리 근성

으로 실력이 빠르게 발전했고, 한양대 재학시절이던 1978년 아시아 청소년 축구선수권대회에서 주장을 맡아 우승을 이끌며 재목감으로 성장했다. 1984년 K리그 럭키 금성(현재 FC서울) 창단 멤버로 프로 리그에 데뷔한 박항서는 1985년 리그 우승을, 1986년 팀의 주장으로 준우승을 이끌기도 했다. 1988 시즌을 끝으로 은퇴한 그가 뒀던 A매치는 1981년 3월 한일정기전 단 한 경기다. 그것도 교체 멤버였다. 그가 축구인생에서 가장 아쉬워하는 대목이다. '독이 든 성배'라는 베트남 대표팀 감독직에 영정을 쏟아부은 그는 이제 60대 중반을 넘어섰다. 베트남 축구에 혁혁한 공을 세우면서 연봉도 크게 올랐다. 선수들과 동고동락 했기에 지난 5년이 너무나 행복했던 축구 감독, 인간적인 지도자, 그는 한국인이었다. 우리는 그를 영웅이라 부른다. 계약이 끝난 박감독이 었그제 귀국했다. 앞으로 어떤 일을 할지 그에게 정해진 것은 없다. 분명한 것은 축구와 관련된 일을 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어떠한 임무를 맡던 간에 '박항서의 매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썬렌(힘내라)의 베트남어' 박항서!

**“누가 내 삶을 만들어 줄 것인가. 오로지 내 스스로 한 층 한 층 쌓아 갈 뿐이다.”**

〈산에는 꽃이 피네〉 〈텅 빈 층만〉 등 **법정 스님의 영혼을 울리는 명수필**

범정 스님  
 일한 10주기 특별판  
 생애 50주년  
 지명 600호 기념판

범정 글 | 216쪽 | 12,000원